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 분석*

박 임 자†

이 경 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와 유아 상호작용을 구조화된 상호작용 평가도구인 협동구성관계(Steel, D'Agostino, Blom, 2005)를 이용하여 그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에 거주하는 취학 전 다문화가정의 만 3~6세 유아와 그 어머니 21쌍, 이들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만 3~6세 유아와 그 어머니 21쌍이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행동'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일반가정 어머니가 유아와 상호작용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의 상관성 분석에서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이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과 어머니-유아 행동특성 하위영역인 '균형성 및 협동성', '창의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로의 전환'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 본 결과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가 쌓은 블록이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 지속성도 일반가정 유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 민감성과 유아의 행동특성과의 관계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민감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일반가정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질적 관찰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어머니와 유아 두 대상을 모두 포괄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민감성

* 본 논문은 2011년도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이며, 이 논문은 한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E-mail : debkslee@hs.ac.kr

‡ 한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학과 놀이치료 및 상담 전공 석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결혼 대상자의 부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인해 199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자들의 대규모 국내 유입을 경험하게 되었다(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이에 따라 국제결혼 건수는 2010년 총 결혼건수의 10.8%로 10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는 추세이며(행정안전부, 2011), 이들 자녀수도 급증해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주민(국내에 90일 넘게 체류하는 외국인,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과 그 자녀)의 11.9%인 151,154명이며, 이중 초등학생 이하가 86.8%를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수는 2009년 99,684명에서 11년 후인 2020년 302,692명으로 3.04배 늘어나는 등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 이주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과 가족의 안정성 강화, 사회통합 지원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선행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발달수준이 뒤처지며, 이후 아동기에 학교에서 높은 중도탈락률, 부적응, 낮은 성적 등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조영달, 2006;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김경택, 2005). 그에 반해 다문화 관련 연구와 국가 정책 지원대상은 국제결혼가정, 특히 이주여성 등에 편중되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를 부분적으로 다루기는 하였으나, 특히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김은영 외, 2010). 그러나 9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정의 취학 전 유아가 학교에 진학을 할 것을 감안할 때,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에 따른 대책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국내의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대한 연구 중 다문화가정 내의 부모-유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아동발달이 관계를 통해 나아가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매우 크다. Maccoby(1992)는 어머니와 자녀관계는 어머니가 일방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를 벗어나 자녀를 어머니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 관계로 인식하였다. Bigner(1985)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신호와 암시에 어머니가 반응하고 아동도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Jaffe, Beebe, Feldstein, Crown 그리고 Jasnow(2001), Sander(2002)는 어머니와 유아는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 행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체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물론 일반적으로, 관계에서 부모가 행사하는 영향력의 정도는 아동의 영향력보다 더 큰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예컨대, 민감하게 반응적인 부모의 양육은 생후 3개월에 기질적으로 ‘다루기 힘들다’고 평가된 유아들이 12개월 때 ‘다루기 쉬운’ 아동으로 재평가될 만큼 아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양육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소위 다루기 쉬운 순한 기질조차도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기질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lsky, Fish, & Isabella, 1991).

또한 Beebe(2005)의 유아와 부모에 대한 면대면 연구 결과들은 Ainsworth가 안정 애착이 근접성과 탐험, 연결과 자율성, 관계성과 자기정의(self-definition) 간의 균형에서 나타난다고

이해한 것과 일치한다. 면대면 교류의 녹화 자료를 보면, 안정 애착은 엄마와 유아 사이의 가깝지만 완벽하지 않은 반응성과 연관되는데 이런 반응성은 유아가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공유될 수 있고, 동시에 타인의 내적인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 주는 경험의 일부가 된다(David, 2007). Smith와 Pederson(1988)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영아의 어머니는 영아의 신호를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고 보다 민감하게 응답한다고 하였고, 자녀의 단서를 잘 알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어머니의 민감성과 영아의 애착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즉, 영아가 어머니와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영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양육자로서 영아의 신호에 보다 재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민감성을 강조하고 있다.

학령전기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애착표상을 연구한 박경자, 김송이(2007)의 연구는 애착표상의 분류에서 일반아동의 안정성 점수와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안정성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여 부모자녀관계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하였으나, 다문화가정만 3~5세 유아의 애착 양상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특성을 살펴본 성미영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유아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보다 부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유아는 보다 긍정적인 어머니 애착 표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기의 부모자녀 애착관계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다. Fonagy, Gereley, Jurist와 Target(2002)과 Schore(2003)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애착 관계는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

는 방법을 배우는 일차적인 맥락이라고 제안하며, 우리의 최초 애착의 특성을 보여주는 관계 패턴은 근본적으로는 정서 조절 패턴이고, 이 패턴은 이후 경험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반응성의 본질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을 고려할 때 우리사회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부모-유아 관계의 특성을 살펴볼 때 부모와 유아의 행동은 일상적인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접근에 의하면,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의 맥락을 미시체계와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나누었으며, 발달하는 사람은 여러 환경체계의 중심에 들어있다. 사회경제적 지위(SEI, Social Economic Status)는 직접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기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체계이다. 이 중 부모의 직업은 시간에 따라 유동적이며 계량화에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점에서 직업을 SEI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아동발달 연구들에서 SEI는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근거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아동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Bornstein, Hahn, Suwalsky, & Haynes, 2003).

선행연구에 의하면, 월 소득이 많을수록 가정의 인지적 환경이 우수하고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으며(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 부모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경, 성지현, 2011). 소득

계층에 따라 저소득층에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물리적 학습자극이, 중/고소득층에서는 부모의 학습적 행동이 유아의 언어발달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연, 광금주, 2008).

또한 다문화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와 어머니의 놀이상호작용을 살펴본 송요현(2009)의 연구결과 다문화가정 유아와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은 유아의 성별, 연령과 어머니의 출신국가, 한국 거주기간, 자녀와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다르지 않아 다문화 가정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유대감을 획득하고 사회화의 기본인 신뢰감과 정서적인 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숙, 이선우, 박임자(2011)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들은 아동과의 상호작용 시 정서표현 행동이 다소 부족하며, 상호작용할 때 아동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순간에 충분히 칭찬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어머니와 상호작용 시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반응성과 놀이에 집중하여 흥미를 지속시키는 활동적 수준은 비교적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특성에서 아동의 연령별, 성별, 어머니의 출신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송요현(2009)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다문화가정과 비교집단을 설정한 전은애(2008)의 연구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질이 일반가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상호작용 동안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다소 수동적이고 아동에게 무관심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간의 집단 차이가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사회경제적 변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증한 결과 소득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만의 특수한 요인이 어머니-아동 상호작용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부모-아동 상호작용의 차이에 미치는 다문화가정의 낮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전유경(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모의 지나친 주도성, 학습적 태도, 질문, 의견제시가 많았고, 수용과 칭찬은 적게 사용하였고, 자녀는 부정적인 반응과 회피행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서 또한 중요하게 살펴보는 변인 중 하나는 부모의 민감성이다. Bowlby(1988)는 정서적 교류를 생애 초기 몇 년 동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통 수단’이라고 기술하면서 정서(emotion)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Bowlby는 초기 유아기부터 애착에 대한 개인의 내적 작동 모델이 그 개인으로 하여금 이미 반복해서 일어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패턴을 인식하고, 그래서 양육자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알게 해 준다고 이론화하였다. 내적 작동 모델은 기대와 그런 기대에서 나오는 행동에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Main(Main, Kaplan, & Cassidy, 1985)은 종단연구에서 내적 작동 모델의 세대간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이 발견은 부모의 내적 작동 모델은 유아의 최초의 상호작용 질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유아의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유아가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부모의 민감한 반응성은 유아의 안정 애착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Ainsworth, 1969).

다문화에 관련된 연구가 학술지에 발표되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10년 4월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게재된 ‘다문화’와 ‘유아’를 주제로 연구된 학술지 논문을 분석한 서현아, 김정주(2010)에 의하면, 유아 다문화 관련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도구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자료수집을 위해 사용된 도구는 설문지가 35.53%로 가장 많았으며, 조사연구(25%), 면담(1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인 비교 집단을 설정한 연구는 극히 소수이고(곽금주, 2008;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박경자, 김송이, 2007; 전유경, 2010;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 구성원 중 어머니 또는 아동 한 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 이상의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관계연구는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연구설계의 측면에서 토착민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통제집단과 다문화가정 간의 직접적인 비교연구 수행의 필요성과, 두 대상을 모두 포함하여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구조화된 상호작용 평가 도구인 협동구성과정제(Steel, D'Agostino, Blom, 2005; 이경숙 역, 2009)로 실시하였고, 상호작용시 촬영된 비디오 자료를 분석하여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은 어떠한가?
2.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차이가 있는가?
3.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와 유아 행동특성과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 민감성과 유아의 행동특성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세이브더칠드런¹⁾에서 진행한 사업에 참여한 서울시와 경기도 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3~6세 유아와 그 어머니 21쌍과 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²⁾의 보육시설 아동 대상 심리검사 사업에 참여한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21쌍이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로 구성된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외국인 어머니의 국적은 전체 결혼이주여성 비율이 높은 국가인 중국(한국계중국 포함),

- 1) 세이브더칠드런 :다문화 아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 지원사업 진행
- 2) 시소와 그네 마포영유아통합지원센터: ‘희망브릿지 IV 심리검사’(영유아들의 인지 및 정서 발달과 문제의 조기 발견을 위한 심리검사) 진행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지능에 대한 동질성 검정 결과

	다문화가정 (n=21)	일반가정 (n=21)	t
	M (SD)	M (SD)	
전체지능	102.67 (8.75)	106.62 (14.64)	-1.06
동작성지능	103.00 (12.22)	105.38 (14.30)	-.58
언어성지능	102.00 (13.57)	105.90 (14.07)	-.92

베트남, 몽골을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유아의 경우 한국판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의 전체지능(80 이상),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를 통한 총 난점에서의 정상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하였고(정상 범주인 0~15 점 사이에 속하는 유아로 점수 평균은 7.9였다),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 한국판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의 전체지능(80 이상),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총 문제행동(선정된 아동의 T점수는 35~62T로, 임상적으로 유의한 63T를 넘지 않아 정상 범주에 속했으며 T점수 평균은 49.9였다)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수도권(안산과 서울)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편을 둔 결혼이주여성으로 한국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고 연령이 20~40대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20~40대 여성으로 한국인 남편을 둔 한국여성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아동의 동질성 평가는 지능검사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아동과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측정도구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 협동구성과제
 부모-아동 상호작용 행동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발된 협동구성과제(Steel, D'Agostino,

Blom, 2005; 이경숙 역, 2009)는 양자 상호작용에 대한 비디오 평가도구이다. 부모와 아동이 테이블 앞에 함께 앉아 주어진 나무 블록(다른 형태, 색깔, 크기를 가진)으로 가능한 한 많은 블록을 사용하여 무엇이든 만들도록 요구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분석의 틀은 부모의 비언어적 행동, 부모의 언어적 행동, 부모의 전반적 평정, 아동의 비언어적 평정, 아동의 언어적 행동, 아동의 전반적 평정, 부모-아동간 상호작용영역인 7개영역의 하위 50개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의 채점 체계는 부모와 아동이 5분간 상호작용한 전체 내용을 분석했으나, Beebe(2005)의 미시적 접근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총 5분을 10초 간격으로 상호작용의 미세한 부분을 관찰하도록 변경되었다. 매 10초간의 상호작용 분석은 암시적이고 비언어적이며 포착하기 어려운 변화를 고려하고, '애착 촉진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래 도구의 7개 상호작용 영역을 채택하고 본 연구의 대상인 어머니와 유아들에게 적합한 분석의 하위 코드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협동구성과제 분석코드는 31개였고 그 외 '과제 지속성'과 '과제로의 전환' 코드 2개를 연구자들이 추가하여 총 33개의 코드로 분류 측정하였다. 자세한 분석영역과

표 2. 연구대상 유아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 수		다문화가정 (n=21)	일반가정 (n=21)	
		빈도(%)	빈도(%)	
유아	연령	3세	3 (14.3)	3 (14.3)
		4세	7 (33.3)	7 (33.3)
		5세	9 (42.9)	9 (42.9)
		6세	2 (9.5)	2 (9.5)
유아	성별	남아	7 (33.3)	11 (52.4)
		여아	14 (66.7)	10 (47.6)
어머니	어머니 국적	중국	11 (52.4)	-
		베트남	6 (28.6)	-
		몽골	4 (19.0)	-
어머니	연령	20대	6 (28.6)	0 (0.0)
		30대	12 (57.1)	20 (95.2)
		40대	3 (14.3)	1 (4.8)
		M (SD)	33.71 (6.13)	35.76 (2.47)
어머니	국적 (결혼전 국적)	중국	11 (52.4)	-
		베트남	6 (28.6)	-
		몽골	4 (19.0)	-
어머니	교육수준	12년 이하	10 (47.6)	1 (4.8)
		13년 이상	11 (52.4)	20 (95.2)
		M (SD)	12.86 (3.84)	16.00 (3.24)
어머니	한국거주기간	60~80개월	7 (33.3)	-
		81~100개월	9 (42.9)	-
		101개월 이상	5 (23.8)	-
어머니	직업유무	취업	9 (42.9)	8 (38.1)
		전업주부	12 (57.1)	13 (61.9)
어머니	자녀에게 사용하는 언어	이중언어	6 (28.6)	0 (0.0)
		한국어	15 (71.4)	21 (100.0)
아버지	연령	30대	8 (38.1)	16 (76.2)
		40대	13 (61.9)	5 (23.8)
		M (SD)	42.62 (7.12)	38.05 (16.52)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 이하	11 (52.4)
고졸 이상			7 (33.3)	21 (100.0)
무응답			3 (14.3)	0 (0.0)
M (SD)			13.06 (2.67)	16.52 (1.25)
아버지	직업유무	있음	18 (85.7)	20 (95.2)
		없음	1 (4.8)	1 (4.8)
		무응답	2 (9.5)	0 (0.0)
아버지	월평균소득	200만원 이하	5 (29.4)	2 (9.5)
		200-299만원	7 (41.2)	3 (14.3)
		300만원 이상	5 (29.4)	16 (76.2)
		무응답	4 (19.0)	0 (0)
		M (SD)	254.71 (129.78)	323.81 (88.91)

하위 코드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중 특히 어머니의 전반적 평정영역의 하위 코드인 유아에 대한 민감성 코드는 집단이 다른 유아의 주요 상호작용 영역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50~.88(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50,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50, 어머니의 전반적 평정=.88,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65, 유아의 언어적 행동=.60, 유아의 전반적 평정=.78,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65)로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영역도 있으나 특정 영역에서는 신뢰도 지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형태를 보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pearson 계수 (r)=.88이었다.

한국판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

한국판 웨슬러 유아용 지능검사(Korean Wechsler Preschool & Primary Scale of Intelligence: K-WPPSI: 박혜원, 박금주, 박광배, 2001)는 만 3세에서 만 7세 3개월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검사로 6가지 동작성 검사와 6가지 언어성 검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유아의 전체 지능지수, 동작성 지능지수, 언어성 지능지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 SDQ-Kr)는 아동의 사회성(행동과 정서 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Goodman이 1997년에 Rutter Questionnaire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고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Goodman(2003)이 한국에 맞게 표준화한 SDQ-Kr을 사용하였다. SDQ-Kr은 강점 소척도인 사회지향행동 5문항과 난점 소척도인 과잉행동/부주의 5문항, 정서증상 5문항, 행실

문제 5문항, 또래문제 5문항 등 다섯 증상차원으로 구성되었다. 4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에게 실시하는데, 부모 보고형과 교사 보고형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검사에서는 교사 보고형만 사용하였다. 교사는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한 학기 동안 아동의 행동에 기초하여 각 문항에 ‘전혀 아니다’, ‘다소 그렇다’, ‘분명히 그렇다’의 3개 평정척도로 대답하며, 채점은 문항 당 0~2점이다. 총 강점 점수는 10점이며 높을수록 바람직하고, 총 난점 점수는 40점, 난점의 소척도 점수들은 각각 10점씩으로 낮을수록 바람직하다. 소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0이다.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orea-Child Behavior Checklist; K-CBCL;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는 Achenbach와 Edelbrock (1983)이 제작한 CBCL(Child Behavior Checklist)을 국내에서 번역하여 표준화한 부모보고식 아동행동 평가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K-CBCL 중 총 문제행동 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절차

검사실시

다문화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평가와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 그리고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강점·난점 설문지(SDQ-kr)는 모의 언어능력을 고려하여 유아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을 체크하도록 하였다. 일반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평가와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그리고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를 실시하였다. 아

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CBCL)는 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한 어머니에게 체크하게 하였다.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는 유아와 어머니 모두에게 실시되었으며,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는 장난감이 갖추어진 놀이실에서 진행하였다.

비디오 분석

검사가 끝난 후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재관찰하였고, 녹화된 비디오를 통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을 위한 코딩 매뉴얼을 이용하여 분석을 한 후 코딩하였다.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을 위해서 총 33개 항목을 코딩하였다(부록 1 참조). 분석을 위하여 녹화된 자료를 블라인드된 두 명의 평정자가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을 10초 간격으로 평정하였으며, 평정방법은 각 하위 코드에 맞는 행동이 있을 경우 '1', 행동이 없을 경우 '0'으로 기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심리학자 1인과 영유아 임상가 1인과 협의를 거쳐 5분간의 상호작용 시간을 3분으로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10초 간격으로 이

루어진 각 하위코드의 점수의 합도 30점이 아닌 18점으로 변경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유아들의 검사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9.0을 이용하였다.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와 *t* 검정을 사용하였고,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와 *t* 검정,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

결 과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 비교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행동에서 집단간에 유의

표 3.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 비교

	다문화가정 (n=21)	일반가정 (n=21)	<i>t</i>
	M (SD)	M (SD)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6.25 (2.15)	5.81 (1.37)	.80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4.42 (1.61)	4.89 (1.49)	-.98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9.32 (4.38)	11.76 (3.36)	-2.03*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10.06 (2.40)	10.26 (1.54)	-.33
유아의 언어적 행동	5.55 (1.88)	6.00 (1.70)	-.82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	12.83 (3.51)	12.91 (3.04)	-.07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2.20 (.35)	2.50 (.27)	-3.10**

* $p < .05$, ** $p < .01$

한 차이가 있었다(표 3 참조).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행동 모두에서 일반가정 어머니가 유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를 더 격려하고 유아에 대해 민감한 행동 특성을 보였다. 어머니-유아간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고 협동적이며, 창의성이 뛰어나고, 전반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긍정적이며, 과제 지속성이 높고 과제로의 전환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 코딩 내용은 <부록 1> 참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차이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유아 상호작용은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유아의 언어적 행동과 다소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경제수준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다소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일반가정의 경우 경제수준은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신체적 접근을 함, 부모의 얼굴을 자주 쳐다봄, 긍정적인 얼굴표정을 함, 상호작용시 제스처를 사용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신체적 접촉을 함)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표 4.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상관관계

	모연령	모교육	경제수준	부연령	부교육	
다문화 가정 (n=21)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26	.50*	.53*	-.11	.57*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15	.35	.47	-.18	.47*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20	.45*	.51*	-.21	.43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01	.41	.46	.07	.59**
	유아의 언어적 행동	-.04	.44*	.38	.02	.58*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	-.01	.31	.47	.29	.53*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02	.20	.38	.15	.56*
일반 가정 (n=21)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14	.06	-.29	.11	.17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00	-.02	-.06	.38	.18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13	-.17	-.19	.16	.17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22	.18	-.44*	-.08	.29
	유아의 언어적 행동	-.25	.17	-.15	-.06	.17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	-.03	.20	-.05	.30	.23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08	-.18	-.08	.31	.05

* $p < .05$, ** $p < .01$

보였다(표 4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은 21개 항목 중에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총 점에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관련성이 높아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과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의 관련성이 높지 않았고, 상호작용시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과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만이 관련성이 없었다(표 5 참조).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상관관계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은 21개 항목 중에서 15개의 항목이 유의해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보다는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모든 분야의 행동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으며,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은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특성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가정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은 모든 분야의 행동특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아의 언어적 행동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특성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을 제외한 나머지 행동특성들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가정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행동은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과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상관분석

	1	2	3	4	5	6	7
어머니의 행동특성							
1.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1						
2.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73**	1					
3.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66**	.88**	1				
유아의 행동특성							
4.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63**	.39	.42	1			
5. 유아의 언어적 행동	.57**	.61**	.57**	.56**	1		
6.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	.47*	.58**	.60**	.73**	.69**	1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7.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36	.53*	.56**	.55*	.47*	.72**	1

* $p < .05$, ** $p < .01$

표 6.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상관분석

	1	2	3	4	5	6	7
어머니의 행동특성							
1.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1						
2.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	.45*	1					
3.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51*	.82**	1				
유아의 행동특성							
4.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58**	.48*	.51*	1			
5. 유아의 언어적 행동	.37	.57**	.47*	.70**	1		
6.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	.21	.58**	.51*	.56**	.75**	1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7.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12	.50*	.28	.24	.37	.58**	1

* $p < .05$, ** $p < .0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의 하위영역 비교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의 하위영역인 ‘균형성 및 협동성’, ‘창의성’, ‘전반적인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로의 전환’(부록 1 참조)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 중 창의성과 과제 지속성에서 두 영역 모두 일반가정의 평균

점수가 높아 다문화가정보다 일반가정이 창의성과 과제 지속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이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과 어떤 상관

표 7.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 비교

	다문화가정 (n=21)	일반가정 (n=21)	t
	M (SD)	M (SD)	
어머니-유아의 행동특성			
균형성 및 협동성	1.90 (.63)	2.14 (.57)	-1.29
창의성	1.48 (.51)	2.00 (.63)	-2.95**
전반적인 상호작용	2.29 (.46)	2.48 (.60)	-1.15
과제 지속성	2.62 (.50)	2.95 (.22)	-2.81**
과제로의 전환	2.71 (.47)	2.90 (.30)	-1.58

* $p < .05$, ** $p < .01$

표 8. 다문화가정 어머니, 유아 행동특성과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에 대한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균형성 및 협동성	창의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로의 전환
어머니	비언어적 행동	.52*	.13	.63**	-.34	.15
	언어적 행동	.64**	.38	.69**	-.23	.25
	전반적인 행동	.68**	.33	.71**	-.12	.24
유아	비언어적 행동	.44*	.10	.61**	.18	.54*
	언어적 행동	.68**	.41	.38	-.11	.11
	전반적인 행동	.57**	.43	.61**	.32	.50*

* $p < .05$, ** $p < .01$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비언어적, 언어적, 전반적 행동은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인 균형성 및 협동성, 전반적 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은 균형성 및 협동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로의 전환과, 유아의 언어적 행동은 균형성 및 협동성과,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은 균형성 및 협동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로의 전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일반가정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이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과 어떤 관련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은 유아의 창의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은 균형성 및 협동성, 전반적인 상호작용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유아의 언어적 행동은 전반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었다. 유아의 언어적 행

표 9. 일반가정 어머니, 유아 행동특성과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에 대한 하위영역과의 상관관계

		균형성 및 협동성	창의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로의 전환
어머니	비언어적 행동	.16	-.58**	.33	-.28	-.08
	언어적 행동	.50*	.05	.73**	-.24	-.13
	전반적인 행동	.23	.06	.54*	-.27	-.21
유아	비언어적 행동	.24	-.09	.40	-.10	.07
	언어적 행동	.28	-.04	.46*	-.00	.28
	전반적인 행동	.52*	.15	.61**	.01	.01

* $p < .05$, ** $p < .01$

동은 전반적 상호작용,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은 균형성 및 협동성, 전반적 상호작용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표 9 참조).

전반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었다(표 11 참조).

논 의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의 행동특성과의 관계

어머니 행동특성 안에 있는 ‘민감성’ 항목을 통해 민감성을 측정한 결과(부록 1 참조)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민감성 평균이 2.15점 낮았으며,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일반가정 어머니의 민감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 행동특성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었고,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유아의 언어적 행동, 유아의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을 어머니와 유아, 어머니-유아 간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평가도구인 협동구성과제(Steel, D'Agostino, Blom, 2005; 이경숙 역, 2009)를 사용하였으며,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유아 쌍이 협동구성과제를 실시하는 동안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후 코딩 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

표 10.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민감성 비교

	다문화가정 (n=21)	일반가정 (n=21)	t
	M (SD)	M (SD)	
어머니의 행동특성			
민감성	7.72 (5.67)	10.81 (3.78)	-2.15*

* $p < .05$

표 11.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의 민감성과 유아 행동특성과의 상관관계

	유 아		
	비언어적 행동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행동
어머니의 민감성			
다문화가정	.38	.56**	.64**
일반가정	.59**	.75**	.56**

* $p < .05$, ** $p < .01$

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을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행동’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일반가정 어머니가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유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아를 더 격려하고 유아에 대해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이 더 균형을 이루고 협동적이며, 창의성이 뛰어나고, 전반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긍정적이며, 유아의 과제 지속성이 높고 과제로의 전환이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과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일반가정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것과 같은 결과이며, 전유경(2010)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유아가 부정적인 반응과 회피행동이 많다는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송요현(2009)의 최근 연구에서 다문화 가정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정서적인 유대감을 획득하고 사회화의 기본인 신뢰감과 정서적인 지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는 다소 다른 결과로 대상의 특수성으로 비교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어머니-유아 상호작용과의 상관성을 분석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아버지의 교육수준 그리고 경제수준이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가정의 경우 경제수준만이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 유아의

언어적 행동과 관련성을 보였고, 경제수준은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 어머니의 전반적인 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가정의 경우 경제수준은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신체적 접근을 함, 부모의 얼굴을 자주 쳐다봄, 긍정적인 얼굴표정을 함, 상호작용시 제스처를 사용함,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신체적 접촉을 함)은 덜 나타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경우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많은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원영(1983)은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서적 발달을 강조하며 자녀에게 애정적 태도를 보이며,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는 지적 발달을 우선적 교육 목표로 삼고 자녀에게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의 자율성을 덜 존중하며, 덜 협력적이고 더 처벌적이고 더 많이 개입한다고 하였으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이 높은 어머니들에 비해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보다 통제적이었다(Hoff-Ginsberg, 1991). 그러나 전은애(2008)의 경우 다문화가정 4~6세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빈곤의 영향을 배제한 후에도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을 때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질에 미치는 다문화가정 내 빈곤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밝혔다. 즉 다문화가정만의 특수한 요인이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특성에서의 집단간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 다문화가정의 낮은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의 질이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님

을 밝혀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와 그 자녀 40쌍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관찰 및 조사를 실시한 임은숙(2011)의 연구 또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한 달 총수입 등 다문화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에 유아발달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접적으로 아동과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기보다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 환경을 결정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체계이며, 이러한 가정의 소득과 부모의 학력을 근거로 규정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특히 어머니의 학력은 유아의 발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Bornstein et al., 2003)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다문화가정의 다양한 특수성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셋째, 어머니와 유아의 행동특성과 어머니-유아간 행동특성 하위영역인 ‘균형성 및 협동성’, ‘창의성’, ‘전반적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로의 전환’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결과 일반가정 어머니와 유아가 쌓은 블록이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가 쌓은 블록보다 더 창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제 지속성도 일반가정 유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은애(2008)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상호작용 동안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다소 수동적이고 유아에게 무관심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유아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 특성을 보였다는 결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이경숙, 이선우, 박임자(2011)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자녀와 상호작용 시 유아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순간에 충분히 칭찬하지 못한 경

향을 보였으며, 박금주(2008)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고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며, 서로 긍정적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가 일반가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다. 즉, 최근의 국내 다문화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특성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본 연구결과에서 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창의성과 유아의 과제 지속성이 일반가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Vygotsky(1978)는 성인과 유아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았고, 성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풀게 되었을 때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Freund(1990)의 연구에서도 3, 5세 유아들에게 인형의 집 모형을 분류, 배치하는 과제를 부과한 후, 어머니와 함께 해결하는 유아들과 스스로 해결하는 유아들로 나누어 연구하였을 때 어머니와 상호작용하며 참여했던 유아들이 더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어린 유아의 과제해결에는 과제의 난이도와 유아의 나이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지원하고, 유아는 과제해결맥락에서 자신을 지원해주는 성인과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 전략을 발달시키고,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는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과제지속성은 앞으로 유아가 학습의 단계로 나아갈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 국내 다문화가정 유아 발달에서 부모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한다.

넷째,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어머니 민감

성과 유아의 행동특성과의 관계성 결과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일반가정 어머니에 비해 민감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언어적 행동, 전반적인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고, 일반가정의 경우 어머니의 민감성이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 유아의 언어적 행동, 유아의 전반적인 행동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이는 민감성이라는 요소로 분석하지는 않았으나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상호작용 동안 일반가정 어머니보다 다소 수동적이고 유아에게 무관심하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한 결과를 나타낸 전은애(2008)의 연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정서표현 행동이 다소 부족하며, 상호작용할 때 유아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순간에 충분히 칭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인 이경숙 등(2011)의 연구에서 보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특성과도 일치된 결과이다.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월 소득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민감성이 높으며(Raviv, Kessenich, & Morrison, 2004), 민감성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장유경, 성지현, 2011)는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부모가 사회경제적 수준 지위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도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낮은 민감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겠다. 유아가 어머니와 친밀하고 애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유아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양육자로서 유아의 신호에 보다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은 유아의 안정 애착을 결정짓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Ainsworth, 1969), 어머니와 유아의 애착 관계는 유아가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차적인 맥락이다.

이 패턴은 이후 경험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반응성의 본질의 많은 부분을 결정(Fonagy, Gereley, Jurist, Target, 2002; Schore, 2003)하기에 자녀에게 있어 어머니의 민감한 반응성은 일생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유아양육에서 어머니의 민감성 증진을 위한 접근은 추후 다문화 양육지원이나 부모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그동안 국내 다문화 연구에서 일반 비교집단을 설정한 연구는 극히 적고, 가족구성원 둘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소수이며 특히 지역에 따른 대상의 구분이 없이 농어촌과 도시지역이 통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그동안 특정하게 연구된 적이 없는 도시지역의 비교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다. 또한 어머니와 유아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하여 상호작용을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면담이나 질문지 등으로만 측정하였을 때보다 정확한 분석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주 연구대상인 유아 개인에 대한 검사는 다양하게 실시되었으나, 어머니에 대한 검사가 다소 미비하여 유아와의 상호작용 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머니 적응의 문제와 양육태도, 어머니의 정서 등에 대해서는 통제가 되지 못한 점이다. 또한 국내에서 처음 사용된 협동구성과제 평가도구의 영역별 신뢰도가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각 단위를 10초 단위 분석하는 방법 외에 총 시간을 한 단위로 분석하는 평정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보완점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바

이후에 아버지를 포함시켜 검사가 실시된다면 더 다양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위해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민감성을 높일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곽금주 (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은영, 문무경, 김문희, 박수연 (2010).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박경자, 김송이 (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 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혜원, 곽금주, 박광배 (2002). K-WPPSI(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실시요강.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서현아, 김정주 (2010). 유아 다문화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한국영유아보육학, 65.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김경택 등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 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다문화 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성미영, 김정현, 진세경, 정현심, 권윤정 (2010). 다문화가정 유아의 애착 및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특성-애착 유형, 애착 표상, 애착 안정성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9(3), 23-39.
- 송요현 (2009).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언어능력과 유아-어머니간 놀이상호작용.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수, 안정숙, 최영훈, 김혜지 (2009). 강점·난점설문지(SDQ-Kr)의 임상 활용도. 정신신체의학, 17(2), 75-81.
- 안정숙, 전성균, 한준규, 노경선 (2003). 한국어판 강점·난점 설문지(Strengths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개발. 신경정신의학, 42(1), 141-148.
- 오경자, 이혜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경숙 역 (2009). 애착이론의 아동임상적용. 한신대학교출판부
- 이경숙, 이선우, 박임자 (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양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지연, 곽금주 (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51-165.
- 임은숙 (201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어머니 및 자녀의 상호작용행동 분석.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유경, 성지현 (2011). 영아, 어머니,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24개월 영아의 표현어휘 습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4(2), 136-154
- 장유경 (2010).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모-자 상호작용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상담실에 의뢰된 아동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영달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교육인적자원부.
- 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 공간. 서울: 푸른길.
-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다문화사회지원팀 보도자료.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Beebe, B. (2005). Mother-infant research informs mother-infant treatment.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60, 7-46.
- Belsky, J., Fish, B., & Isabella, P.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in infant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ality: Family antecedents and attachment consequences.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421-431.
- Bigner, J. J. (1985). *Parent-child relations: An introduction to parenting* (2nd ed.). New York: Macmillian Publishing Co.,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ers.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D., & Haynes, O. M.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 (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pp.29-82).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Bowlby, J. (1988). *A secure base: Clinical applications of attachment theory*. London: Routledge.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 David J. Wallin (2007). *Attachment in Psychotherapy*. NY: Guilford Press.
- Fonagy, P., Gereley, G., Jurist, E. J., & Target, M. I. (2002). *Affect regulation, men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Other Press.
- Freund, L. (1990). Maternal regulation of children's problem-solving behavior and its impact on children's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1(1), 113-126
- Hoff-Ginsberg, E. (1991). Mother-child conversation in different social classes and communicative settings. *Child Development* 62(4), 782-96.
- Jaffe, J., Beebe, B., Feldstein, S., Crown, C., & Jasnaw, M. (2001). Rhythms of dialogue in early infanc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6(2, Serial No. 26(4), 1-132
- Maccoby, E. E. (1992). The role of parents in the socialization of children: An historic over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8(6), 1006-1017.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66-104.
- Raviv, T., Kessenich, M., & Morrison, F. J. (2004). A mediational model of the association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three-year-old language abilities: the role of parenting facto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9(4), 528-547.
- Sander, L. W. (2002). *Thinking differently: Principles of process in living systems*. Schore, A. N. (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repair of the self*. New York: Norton.
- Schore, A. N. (2003). *Affect regulation and the repair of the self*. New York: Norton.
- Smith, P. B., & Pederson, D. R. (1988). Maternal sensitivity and patterns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9, 1097-1101.
- Steel, M., D'Agostino, D., & Blom, I. (2005). The co-construction coding manual: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Unpublished manuscript.
- Vygotsky, L. S. (1978).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mental processes* (M. Cole, V. John-Steiner, S. Scribner, & E. Souberman, E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1 차원고접수 : 2012. 5. 6.
심사통과접수 : 2012. 6. 17.
최종원고접수 : 2012. 6. 20.

Analyses on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Child Intera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ypical Korean Families

Im Ja Park

Kyung Sook Lee

Han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other-child intera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ypical Korean families. The co-construction task (Steel, D'Agostno, Blom, 2005) appraisal for structured mother-child interactions was videotaped and analyzed for comparative analysis of characteristics of mother-child interaction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typical Korean famili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21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aged three to six of multi-cultural families residing in urban areas and 21 mothers of pre-school children aged three to six of typical Korean families residing in the same area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erms of Parent Global Ratings and Dyad Ratings between the two groups; mothers from typical Korean families showed more positive interactions with their children. Second,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found that education levels of parents and economic levels of families ha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typical Korean families, a negative correlation was only indicated between economic levels of the families and nonverbal behaviors of children. Third, in terms of r relations between mother-child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sub-domains of behavioral characteristics: balance & cooperation, creativity, overall interactions, task persistence, and task switching, mothers and children from the typical families stacked blocks more creatively and the level of task persistence was higher among children from the typical families. Fourth,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sensitivity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 of children, mothers from the multi-cultural families indicated significantly low sensitivity compared with mothers from the typical families.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mother-child interaction, sensitivity

<부록 1> 어머니-유아 상호작용 분석 코드 (총 코드 수 33개)

	코드내용	코드수
1) 어머니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5
	어머니가 신체적 접촉을 한다	
	쳐다보기	
	얼굴표정(긍정적)	
	제스처	
	신체적 접촉방식(지지적)	
2) 어머니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6
	언어적 표현(긍정적)	
	유아의 이름 사용	
	우리'라는 대명사 사용	
	질문에 대한 반응	
	긍정적인 언어적 강화	
	함께 한 경험을 언급하기	
3) 어머니에 대한 전반적인 평정		3
	긍정적인 태도	
	격려 행동	
	유아에 대한 민감성 (유아의 요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그 요구에 맞추기 위해 행동을 바꿀 수 있는가?)	
4) 유아의 비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5
	유아는 신체적 접근을 한다	
	쳐다보기	
	얼굴 표정(긍정적)	
	제스처	
	신체적 접촉 방식(상호작용 촉진)	
5) 유아의 언어적 행동에 대한 평정		6
	언어적 표현(긍정적)	
	어머니의 이름(성 등) 이용	
	우리'라는 대명사 사용	
	질문에 대한 반응	
	제안/상호작용 시도에 대한 반응	
	상호작용 시도하기, 제안하기	
6) 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정		3
	긍정적인 태도	
	관심/주의	
	과제하기	
7) 어머니-유아간 상호작용 평정		5
	상호작용이 균형을 이루고 협동적임	
	창의성 (블록 쌓는 과제를 하는 동안 창의성을 얼마나 보이는지를 측정)	
	전반적인 상호작용	
	과제 지속성	
	과제료의 전환	